

효녀 심청으로 시작해 전북연극상 시상식까지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 제24회 전북소극장연극제 성황리 개최

소극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5개 연극단체가 참여하는 제24회 전북소극장연극제가 전주의 아하 아트홀과 소극장 관객작 소극장 그리고 남원의 지리산 소극장, 익산의 소극장 아르케에서 (사)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 주최·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연극제의 서막은 연극단체가 치러주는 인형극 '효녀심청' (정경선 작·연출)을 28일~12월 2일 오전10시30분 아하아트홀 무대에 올린다.

문화영토 판은 '빛의 연인들' (하일호 작·연출)을 9일~12월 25일(월요일 제외) 평일 8시, 주말 4시 소극장관에서 공연하며, 극단 동지는 '불편한 사람들 2탄' (최원준 작·연출)으로 15일~12월 24일 평일 오후7시30분, 주말 3시 지리산 소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극단 명태는 '개광발레' (오혜정 작·최경성 연출)을 16일~12월 25일 평일 7시30분, 주말 4시 아하 아트홀에서, 극단 작은소리와 동작은 'See you, in Heaven!' (최경식 작·연출)을 12월 16일~31일 평일 오후7시30분과 주말 오후4시 소극장 아르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연극제의 축하공연은 '나부터 2016' (박동화 작·조만철 연출)으로 12월 22일



제24회 전북소극장연극제가 전주의 아하 아트홀과 소극장 관객작 소극장 그리고 남원의 지리산 소극장, 익산의 소극장 아르케에서 (사)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 주최·주관으로 열렸다.

~24일 평일 7시30분, 주말 3시 창작소극장에서 열리게 된다.

이와 함께 '소극장연극제 24년, 새로운 지평을 그리다'와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소극장 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학술

연극인의 밤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12월 29일 오후 4시.

(사)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 정두영 회장은 "전북 소극장은 그동안 전북연극의 산역사로 연극 예술의 토대를 지켜

왔으며 전북예술문화를 이끌어온 저부

심이고 중심이다"며 "오랫동안 전북도민들과 늘 곁을 같이 하여 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리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공연문의 063)277-7440.

/정해은 기자

아이 건강과 두뇌 살리는 '먹을거리'

소혜순 팔당생명살림식생활연구소 소장

국악콘서트에 초대, 음악과 함께 이야기 펼쳐

어른들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병들어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찾아주는 이야기가 소울 실내악단의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소혜순 팔당생명살림식생활연구소 소장을 국악콘서트 다담에 초대, 아이를 살리는 '먹을거리'란 주제로 오는 27일 오전11시 예음헌에서 공연을 갖는다.

소혜순 소장은 자연주의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찾는 엄마들의 모임인 '다담'을 지키는 엄마 모임을 만나면서 환경운동가의 길에 들어섰으며, 환경정의 다음지킴이국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아 강의와 글쓰기 등으로 아이를 지키기 위한 환경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나쁜습관 vs 건강한 밥상'의 공동저자로 참여했으며, 한겨레신문에 '우리아이 건강하게 길러주세요' 연재하기도 했다.

소 소장의 이야기와 함께 하는 음악은 '소울 국악실내악단'이 맡는다.

이들은 무대에서 '바람을 그리다', '기억의 조각' 등 감성적인 음악과 관소리, 민요 등을 연주한다.

소울 국악실내악단은 2004년 원광대학교 국악과 출신들로 결성된 단체로, 현재 전주시립국악단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주자들은 우리 음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지역 내에서 우리 음악을 전파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참석할 관객 5명에게는 소혜순 소장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책을 선물로 증정하며, 배우기 시간에는 관소리 단가 '고왕금대'를 함께 불러본다.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063) 620-2324. /정해은 기자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문화가 있는 콘서트' 진행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이사장 탁영환)은 오는 28~30일 오거리문화광장(영화의 거리)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는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음악분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오후3시 오픈스테이지를 시작으로 오후8시까지 릴레이 공연을 이어간다.

뮤즈 그레인, Groove 9, 메모리아, 한일장신대 실용음악과 교수 및 학생 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망 예술인(국악, 클래식, 대중음악)들이 무대에 올라 지역민들을 위한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은 전주 지역의



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사회비평' 책 인기

박대통령 하야 여론에 81.7% 증가

정국을 뒤튼 최순실게이트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책 판매 추이도 영향을 받고 있다. 진보성향 인사들의 저서를 위시한 사회비평분야 서적들의 판매가 부쩍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5일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최순실게이트로 인한 각종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가 쏟아져나온 시기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사회·정치분야 중 사회비평·비판 관련 서적들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81.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2014년(69.3% 증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세(2012년 -42.0%, 2013년 -41.5%, 2015년 -53.9%)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런 사태로 인한 대규모 촛불시위 등이 열리기 이전인 전월(9월 24일~10월 23일)과 비교하면 판매가 48.2% 증가했다. 최순실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인 전전월(8월 24일~9월 23일)에 비하면 66.1%가 늘어 더 큰 판매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이 기간 많이 팔린 책의 저자들을 보더라도 진보성향 인사들이 많이 눈에 띈다. 10월 24일~11월 23일 사회비평·비판분야

베스트셀러 30위에 든 책들 가운데 1위는 함세웅 신부와 주진우 기자가 쓴 '악마가 자정의 사제'였고 2위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쓴 '나의 한국현대사'가 차지했다.

또 7위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콜라보네이션', 8위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9위는 유시민 전 장관의 '대한민국 개조론'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기록'(노무현재단 기획·윤태영 저), '주기자'(주진우), '후불제 민주주의'(유시민), '왜 분노해야 하는가'(장하성), '주기자의 사법활극'(주진우), '하무도 무릎 꿇지 않은 밤'(목수정) 등이 포함돼 10여권의 책이 진보성향의 사회비평 관련 서적이었다.

더욱이 이들 서적 가운데 '나의 한국현대사'(2014년 출간)나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2014년), '대한민국 개조론'(2007년), '기록'(2014년) 등의 책은 출간된 지가 꽤 된 책임에도 수위에 이름을 올렸다. 예스24 관계자는 "비교 기간에 출간종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과거에 출간된 도서들도 판매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유시민 전 장관 책들은 출간된 지 꽤 시점이 지났는데도 현재 해당분야 순위에서 자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 12월14일 출시

올 연말 최대 화제작으로 대두되고 있는 '리니지2 레볼루션'이 오는 12월14일 국내 게임 시장에 출시된다.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5일 자사가 개발 중인 초대형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을 구글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에서 동시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볼루션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2'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게임으로, 원작의 감

성을 재현한 광대한 오픈월드와 캐릭터, 고성능, 열병 시스템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언리얼엔진4로 구현된 레볼루션은 전 지역 동시접속 환경을 제공해 PC 온라인 게임 수준의 플레이를 제공한다.

사전예약자 수는 이미 300만을 넘어섰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출시 전까지 이용자는 브랜드 사이트(12.netmarble.net/#index)에서 주요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다. /뉴시스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http://www.phislab.com/>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11월 28일)

<p>▷쥐띠 46년생: 건강에적신호를 조심함. 컨디션 유지에 힘쓰라. 60년생: 상황이 불리하니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지는 것이 상책. 72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이 되지 않으니 협상이나 계약은 미루라. 84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말을 줄게 해주라.</p>	<p>▷소띠 49년생: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다. 61년생: 진실은 통하는 법. 진실로 일관한다면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73년생: 금전적으로는 좋은 기운이나 구설이 따른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 추진하라.</p>	<p>▷호랑이띠 50년생: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62년생: 손아래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라. 좋은 해답. 74년생: 매사에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자세 필요. 86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일구어라.</p>	<p>▷토끼띠 51년생: 동분서주하는 운이나 결과는 미약하니 욕심은 버리라. 6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타난다. 75년생: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의 지해를 빌려라. 87년생: 이동이나 새로운 변화를 갖는 것이 좋은 운이다.</p>
<p>▷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진행하라. 좋은 결과 있을 것. 64년생: 다른 것을 하기 보다는 기존의 해왔던 일에 집중해야한다. 76년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라. 88년생: 욕심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p>	<p>▷뱀띠 53년생: 성급하게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때를 기다리라. 65년생: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가 아닌 뒤로 물러서라. 77년생: 사고수와 실물수가 따르니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89년생: 생리의 전환이 오히려 해가 되니 기존의 것을 고수하라.</p>	<p>▷말띠 54년생: 중간에 피곤한 상황이 발생하니 심신이 고달픈 운이다. 66년생: 어려운 일에 닥치면 손윗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해볼된다. 78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화가 미치니 작은 것이 만족한다. 9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p>	<p>▷양띠 55년생: 타인으로부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67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곤란한 상황을 잘 모면한다. 79년생: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며 큰 그림을 그려라. 91년생: 자신이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일만 진행하라.</p>
<p>▷원숭이띠 55년생: 혼자만의 생각으로 움직이면 민망한 상황이 발생한다. 68년생: 하고자 하는 일의 시작보다는 끝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운. 80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92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p>	<p>▷닭띠 57년생: 좋은 운이 들어오니 서두르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는다. 69년생: 결과적으로는 좋으나 과정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81년생: 남성은 이성을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결과 속이 다르다. 9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이 따르니 말과 행동에 주의가 필요.</p>	<p>▷개띠 48년생: 변동수가 가지면 흥한일이 발생하니 현상을 유지하라. 58년생: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대처하라. 70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기관지 계통을 주의하라. 82년생: 작은 소망은 이룰 수 있는 운이다. 긍정적으로 전진하라.</p>	<p>▷돼지띠 47년생: 계획과 같은 문서를 주고받는 일도 좋다. 59년생: 타인과 화합이 잘 되어 타인이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운이다. 71년생: 소울했던 사람에게 신경 써야 하는 운. 쉽게 화합이 된다. 83년생: 금전운이 안 좋으니 계획적인 지출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p>